

6월국회 소집했지만 추경 불투명

예결위 아직 구성 못하고 위원장도 한국당 몫 한국당 '끝장 투쟁' 예고...시정연설도 힘들 듯

여야 4당이 18일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추경예산(추경)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임시국회에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추경심사 전면 보이콧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철저 검증을 예고하며 대치 국면은 계속되고 있다.

20대 국회 4년차 예결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예결위 위원장도 한국당 몫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거부하면 추경 심사는 '울스름'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6월 국회를 개회하고 당일 정부 추경안에 대한 이날 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한국당과 끝까지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추경이 시급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대어 '끝장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추경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시정연설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재선의 윤후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입법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최대한 정상 가동해 한국당을 복귀를 압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당 협조 없이 20일 시정연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으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한 데 대해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지난 협상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청문회를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한국당은 특히 추경 심사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폭거로 국회를 이수라장으로 만든 뒤 이번에는 재정 포퓰리즘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이게 군소리 말고 통과시키라는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유지하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자 지명은 정치보복, 적폐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이 정부 기조를 보여준다. 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은 검토하겠다"며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열린 자세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한발씩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이미 출발한 6월 임시국회에 답습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발씩 양보하고 결단한다면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와 추경안 심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상에서 중재역을 자임해온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이 제안한 경제청문회 개최를 수용하고, 한국당은 청문회와 추경안 심의를 각각 별개로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국회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간의 의사일정 합의를 추가 시도하지 않고 20일에 곧장 시정연설을 강행하는 방안이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로 임기가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재선임과 이달 30일까지로 돼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 등도 모두 한국당과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은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번 주 안에 시정연설을 마치도록 한국당과 접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전날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공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여의도 국회 의정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경제 걱정한다면 추경 최우선 심의해줘야”

이 총리, 강원 산불지역 사방공사 지연 등 우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추경(추가경정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임시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해 추경을 최우선으로 심의 처리해주시길 국회를 다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 심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추경

을 늦어도 7월 부터는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추경이 마냥 늦어지면 우리 경제의 허방 위험은 높아지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은 커지며, 우리 경제의 나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추경에 더 이상의 차질이 생기면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물량을 확보하고서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지 못해 수출을 못할 수도 있다"며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이미 소진돼 추경이 없으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도와드릴 수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중소기업과 지역업체는 적기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은 사방공사가 지연돼 호우가 내리면 산사태 같은 2

차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촉구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는 국회의 추경 처리 지연을 경제회복 의지 결핍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국회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추경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준비를 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정기 브리핑

예산 6.2% 증액시 농림수산 분야 4% 줄어 서삼석,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업 분야는 1.3% 절감 증액에 그쳐왔다"면서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지출한도에 따라 작성된 "2020년 정부 부처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총 예산 요구안 규모는 498조7,000억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2%가 증액됐지만 농림 수산 분야는 오히려 4%가 줄어 들었다.

반면 농업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총부가가치(GVA)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 2.2%, 2.2%에 불과해서 총인구 대비 농어가 인구 비중인 4.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이는 농업의 생산성이 극히 저조함을 보여 주고 있다.

서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정부의 미래 농업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풍작 농산물 대북 식량 지원 검토해야”

손금주, 보리·양파 등 가격 안정화 차원

보리·양파·마늘 등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가격 급락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손금주 의원이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마련 및 대북식량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소속 손금주(나주·화순)의원은 18일 산지 농산물 가격 안정화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쌀과 함께 보리·양파·마늘 등 풍작 농산물의 대북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들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긴급을 요하는 식량 부족분이 136만여에 이를 정도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는 130만여 이상의 식량비축분이 창고에 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연간 5,000여억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달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북 식량 지원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인도적 식량 지원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한국당, 발목잡지 말고 국회로 돌아오라”

송갑석, 한전공대 중단 발언에 비난 퍼부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갑)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산지위원들이 지난 17일 한전본사를 방문해 '한전공대 추진을 중단하거나 늦춰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등원을 거부한 채 당 대표나 의원들이 지역을 유랑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에 대해 비난과 발목잡기로 허송 생활을 보내고 있다"며 "하루 빨리 국회로 돌아와 추경안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민생입법을 처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전공대는 에너지 벨리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 메카의 핵심축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공과대학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여야국회의원들이 적극 지원해야 함에도 자유한국당이 한전본사까지 방문해서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작년 6·13 재선거로 당선된 후 한전공대 조기 설립을 위해 7월 나주 한전본사를 방문, 한전공대 필요성과 신속한 부지 결정 등을 강조하고 이후 광주·전남·더불어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의 공동명명을 이끌어내는 등 한전공대 조기 설립 추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냈다. /서울=강병운 기자

장성 전원주택 토지매매

* 이제 교통이 최고입니다. *

- 광주에서 15분
장성 IC, 장성호(댐) 1분 (국도도로 12m접)
- 최고의 전원주택 / 산새좋음.공기좋음
300평 - 매가 2억 1천만 (도로앞면 18m) (국도12m접)
- ① 50평 - 매가 4천5백만(주택, 텃밭+주말농장,창고적합)
- ② 100평 - 매가 9천만원(주택, 텃밭+주말농장,창고적합)
- ③ 300평 - 매가 1억2천만(주택, 텃밭+주말농장,창고적합)

기타 추천물건

- ① 장성을 용강리 - 국도도로 접함 (4,545m2) - 1억3천만
- ② 장성을 용강리 - 국도도로 접함 (2,270m2) - 7천만
- ③ 장성을 안평리 - 2차선 도로 접함(523평) - 1억6천

062-382-5500 / 010-6670-9800

상가 매매 [급매]

- 북구 문흥동 (6층) 아파트 1만세대 위치 (병원,대형학원,한의원,스포츠,기타적합)
- 6차선 도로접 코너변 위치
- 보증금 1억에 월 400만

▶ 감정/시세 → 15억
매 가 → 8억

기타 추천물건

- ① 상무지구 메가박스앞 (7층 중 6층) 80평 ▶ 매가 2억8천
- ② 북구 용봉동 (원룸) 토 80평 건물165평 ▶ 매가 6억8천
- ③ 첨단지구 상가 (10층) 25평 (전망최고) ▶ 매가 9천

062-382-5500 / 010-6670-9800

경매 교육 [기초 특수]

☆ 무료 교육 2회 실시 ☆ (월,수,토)

- ① 초급 실전반 (기초 + 실전)
- ② 중급 실전반 (기초 + 실전 + 특별)
-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 지분, 법지, 개발, 절반가격)
- ④ 직업 전문반 (사무실근무, 전문컨설팅)

※ 사무실 함께 쓰실분 (책상, 컴퓨터 → 제공 / 주1회 물건 분석 스테디)

경매 물건 추천

1. 북구 문흥동 (상가주택) 토58평, 건86평 ▶ 감정가 2억7천 → 최저가 2억7천
2. 북구 중흥동 (상가건물) 토52평, 건43평 ▶ 감정가 2억9천6백 → 최저가 2억7백
3. 북구 일곡동 (4층 중 1층상가) 토15, 건41평 ▶ 감정가 3억7천6백 → 최저가 2억6천3백
4. 광산구 우산동 (4층 중 2층 상가) 실평수 121평 ▶ 감정가 14억1천만 → 최저가 4억

062-382-5500 / 010-6670-9800